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buddhanews.com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5월 10일(음력 4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577 호

봉 부처님 오신날 봉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뜰 앞의 잣나무' · '마른 똥막대기'

영어로 옮기면?

"스님들 법문 英譯할 인물도 표준도 없다"… 세계화 '기초부실'

"온 누리에 찾아봐도 있는 곳이 없으나 / 두두물물(頭頭物物) 속에 본체가 드러나 있고 / 여러분 앞에 시종(始終)이 없는 빛을 놓고 있습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발표한 봉축법어 일부다. 이 법어를 '제대로' 영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열 손가락안에 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영어로 쓰인 대표적인 세계불교사인 <불교 2500년사(2500 Years of Buddhism)>. 바파트(P.V.Bapat) 교수가 편찬한 이 책은 총 440페이지에 달하지만 한국불교사는 단 한 페이지 분량뿐이다. 한국불교를 외국어로 소개하는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가 부실하다. 큰스님들의 법문 등 한국불교를 영어로 소개할 인적 · 물질적 토대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왜 이 같은 현실이 초래됐을까?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며 "언어 자체를 경계한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 특성 때문"이라는 진단만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前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 법문집 등 불교 관련 영문번역일을 15년 이상 해오고 있는 브라이언 베리(국제포교사 · 조계종 국제사이트 자문위원)씨. 그는 '이중번역'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즉 한문투성이 법문을 사전으로 일일이 대조해 한글로 번역한 뒤 다시 영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나 '마른 똥막대기(乾屎橛)' 등 한국사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문을 번역하기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주장이다. 달라이 라마처럼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한국불교 세계화는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불교용어 통일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불교 전문 번역자는 "표준화된 용어가 없는 경우 스스로 만들어 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인재발굴 · 양성 소홀의 결과
전문기관 설립 등 대책 절실
"전담인력 없이 외부에 의존"

그러나 무엇보다 관련 전문가들은 "그 동안 불교계에서 인재양성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제대로 된 번역을 하기 위해선 영어 뿐 아니라 한문과 불교에 능통해야 하고 직접 수행을 체험해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영어법회를 열고 있는 청아 스님(대전 자광사 주지)은 "종단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차원에서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국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스님들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번역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영문학을 전공했거나 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초벌번역층 자체가 얇기 때문에 깊이있는 번역을 하기 위해선 교수불자회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포교사회 김봉래 회장은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외국에 유학했던 스님이나 재가불자가 아니더라도 친불교 성향의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장>을 영역화하고 있는 한성자(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씨는 '종단 차원의 번역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한씨는 "번역을 전담하는 인원 및 기관이 구성되면 결집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인재들을 자연스럽게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조계종의 경우 현재 번역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나 인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외부인력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포교원 한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번역 전담부서 및 인력 확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한국 비구니계맥 태국에 전한다

5월 7~10일 조계종 3사 7증 파견… 태국 비구니 '매치' 10명 수계

한국불교계가 태국에 비구니계를 전하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5월 2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7~10일 열리는 태국 부처님오신날 행사기간 동안 '매치' 10여명에게 비구니계 수계식 봉행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명성 스님은 "저를 비롯해 광우 스님, 묘엄 스님 등은 정혜사에서 자운 율사로부터 니화상(비구니계를 주는 계사)의 자격을 전해 받았지만, 조계종은 엄연히 2부중이 수계를 주는 것이 전통"이라며 "총무원장 스님께서 공식적으로 종단의 비구 3사 7증(전계사, 교수사, 갈마사와 7명의 증명 법사)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종단 비구 계사 파견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의 계맥을 태국에 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니 종단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수계법회 추진은 마하출라롱컨대학 총장이 명성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임원 등 13명을 태국국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와 부처님오신날 축하사절로 공식 초청함으로써 이뤄졌다.

태국 불교계는 지난 2004년 '세계여성불자대회(샤카디타)' 이후 비구니계단이 살아있는 한국불교계를 전 세계 여성불교의 종주국으로 여겨 전국비구니회에 수계법회를 제안해 왔었다. '매치'로 불리는 태국의 여성출가자들은 비구니 계단이 없어 비구니계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운달 스님은 "비구니계 수계식이 성사된다면 한국불교가 남방불교에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주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명상으로 치유… '색즉시공' 의 율동

5월 2~3일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네트워크(APPAN · 한국본부장 이선옥)는 '명상치유공연예술'을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심포지엄과 축제를 열었다. 공연에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무용가들이 명상치유에 관한 학술 발표와 각 국의 명상 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선무 창시자인 이선옥씨가 선무도와 선무용을 결합한 '색즉시공 2006년' 의 한 장면.

사진=고영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0~11면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스님

시방세계 7면
동국대소장 '국보전'

가정내 종교갈등 어떻게 4면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14면

부처님오신날 연휴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지역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힘을 그대로…"

동국대, 서정주 미공개 詩 · 만해 친필 공개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미당 서정주 시인의 미발표작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친필 유적 병풍(사진)을 잇달아 공개했다.

동국대는 5월 4일 열린 건학 100주년 기념 '동국백년전'에서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 만해 한용운 스님의 친필 유적 병풍을 최초로 공개했다. '심우도'를 내용으로 하는 10폭짜리 이 병풍은 만해 스님의 필체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앞서 동국대는 5월 1일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출신인 미당의 서정주 시인의 발표시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를 발표했다. "국선화랑도와 불교의 원만한 통합정신을 이어 받아서"로 시작되는 이 시는 동국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것으로 10년 전인 1996년 5월 시인이 미리 써 둔 것이다.

김두식 · 남동우 기자

부처님과 10대 제자 · 불교성인들 사리 전시회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5월 15일까지
성철 스님 법골친견기회, 문의(061)852-1755

www.shmall.net

달마의 氣

건강과 행운의 징표를 그대에게 선물합니다.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1588-3278

新春大福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달마란 예부터 병귀(病鬼)나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맥을 차단하고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 목걸이, 귀고리를 착용하여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세요. 반드시 행운이 당신곁에 함께 합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